

#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한국시장 진출 특성

강재정\*  
jaejung@jejunu.ac.kr

고광명\*\*  
kkm0630@jejunu.ac.kr

## < 目次 >

- |                |         |
|----------------|---------|
| 1. 머리말         | 4. 연구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맺음말  |
|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

主題語: 일본기업(Japanese Enterprises), 지분소유(Ownership), 한국시장(Korean Market), 외국인투자기업 (Foreign-Invested Enterprises),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1. 머리말

한국 정부에서는 2003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계기를 통해 세계적인 개방경제 추세에 맞추어 자본자유화 조치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提高)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sup>1)</sup> 특히 IMF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건수와 금액 면에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sup>2)</sup>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 1) 정부는 1993년 6월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한 이래 외국인투자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할 당시에는 44개 제한업종에 대한 추가 개방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업종개방 노력을 가속화하여 매년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및 개방 시기를 발표해 왔다. 김준동 외(2009)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p.148
- 2)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확대 움직임에 맞추어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앞을 다투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FDI 유치 중 누계금액(신고기준)은 1962년부터 2011년까지 1,8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1998년 이후 유치금액은 신고기준으로 1,625억 달러를 기록하여, 1962년 이후 총 유치금액의 86.8%를 차지하였다. 주요국 투자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미국 28.3%, 일본 9.0%, EU 36.5%가 각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FDI 유치는 2011년도 기준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136억 달러로 2000년 152억 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FDI가 위축된 가운데, 1998년 이후 10년만의 최고 수준을 달성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가 높음을 확인했다는 평가이다. 결국, 한국은 전반적으로 일본 대지진, 중동 정세 불안, 유로 재정위기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FDI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sup>3)</sup>

한편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거품경제가 붕괴된 1990년 이후 임금이나 설비 등의 저렴한 생산비, 지리적 우위성에 불구하고 극히 침체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제도의 불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세제, 수출입 규제, 통관 규제, 제도의 미정비 및 갑작스런 변경, 고용노사관계,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 환율 변동, 인건비 상승 등에 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연도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국투자의 확대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철폐,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직접투자 신고제 전환 등의 각종 규제완화에 주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sup>4)</sup> 최근 일본기업의 2011년도 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는 2010년도 20억 달러보다 9.0% 증가한 22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과 일본 지진 사태와 엔고 현상,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일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이 이어

---

부근 지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산업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어 일본의 조선 관련 기업이나 금속가공 관련 기업이 주목하고 있고,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IT와 기계,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에게 인기가 있다. 창원시, 진주시, 하동군이 유치 사절단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경상남도도 지난 5년간 일본기업 10개 회사를 유치하여 총 투자금액 2조 5천억 원이 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충청남도도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와 석유화학회사를 방문하여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최영호(2011) 「눈에 띄는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韓日時評』 제 252호 p.4

- 3) 대한상공회의소(2005)에서 조사한 ‘해외 글로벌기업의 국내진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은 주로 100% 외국자본에 의한 단독투자(52.4%),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38.8%), 기존 한국기업 인수(7.2%), 지점대리점 형태 등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하였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2005) 『해외 글로벌기업의 국내진출 현황 보고』
- 4) Seoul Japan Club은 2007년에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SIC 건의 사항』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딪치는 노동노사, 금융, 세무, 회계, 지적재산권, 생활 환경 분야 등 5개 이슈에 대해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시장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기업환경에 대한 개선 요망사항으로 노동조건의 하방경직성 시정, 해외송금의 규제완화, 동일인·동일그룹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병기(2008)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p.27

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 駐韓外國企業體總覽』과 『2011 日本企業のアジア進出総覧』 자료를 통해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한국시장 진출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의 지분소유가 지배권, 위험부담, 기술이전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서<sup>5)</sup>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시장진출 특성 차이가 한국직접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시장 진출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연구대상 및 방법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한국시장 진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일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현황

한국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1997년 말에 발생했던 금융위기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그 결과로 인해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을 비롯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폐지 등 일련의 시책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sup>6)</sup>

<표 1>에서 살펴보면, 한국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는 1965년 0.5백만 달러가 투입된 이래 1973년 2.9억 달러, 1988년에는 6.9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즉 1999년에는 17.6억 달러에 이어 2000년에는 정점에 달해 24.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연 13.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액 급증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1973년 453건을 기록한 이후 1997년에는 248건으로 하락했지만 2000년에는 61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5) 具本英(1980) 「外國人投資企業의 投資比率에 관한 分析」 『한국개발연구』2(3)한국개발연구원, pp.34-51

6) 김기국 외(2000)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5-6

&lt;표 1&gt; 일본기업 투자의 추이(1965-2010년) (단위 : 건, 천 달러)

년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년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1965	1	500	1988	295	697,269
1966	4	7,829	1989	246	465,973
1967	9	9,751	1990	234	235,530
1968	29	11,170	1991	214	225,918
1969	29	21,338	1992	147	155,190
1970	95	21,335	1993	163	286,006
1971	101	26,094	1994	215	428,407
1972	212	77,021	1995	292	424,733
1973	453	294,320	1996	263	256,999
1974	227	94,795	1997	248	265,602
1975	70	111,771	1998	330	509,583
1976	118	49,152	1999	392	1,762,408
1977	81	40,135	2000	615	2,451,886
1978	84	75,992	2001	593	776,335
1979	97	104,494	2002	476	1,404,332
1980	59	42,518	2003	502	542,576
1981	53	37,712	2004	557	2,262,576
1982	41	40,281	2005	612	1,880,795
1983	73	168,136	2006	584	2,111,046
1984	90	164,870	2007	470	990,290
1985	96	364,253	2008	460	1,423,941
1986	173	138,650	2009	370	1,934,253
1987	320	497,537	2010	422	2,082,635

자료 : 지식경제부(각 년도),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표 2>에서 투자규모별로 살펴보면, 1백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196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201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5년 이전에는 대부분 1억 달러 미만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는 1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직접투자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1천만-1억 달러 규모의 비중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일본기업의 투자규모별 추이(1965-2011년) (단위 : 건, 천 달러)

구분	1백만 달러 미만	1백만-1천만 달러	1천만-1억 달러	1억 달러 이상	전체
1965	300 [1]				500 [1]
1970	13,718 [92]	7,617 [5]			21,335 [95]
1975	12,385 [57]	32,469 [14]	66,917 [2]		111,771 [70]
1980	17,431 [52]	25,087 [8]			42,518 [59]
1985	19,981 [81]	105,647 [18]	238,625 [1]		364,253 [96]
1990	60,843 [191]	145,365 [46]	29,322 [2]		235,530 [234]
1995	59,052 [228]	162,328 [61]	203,353 [10]		424,733 [292]
2000	114,664 [521]	222,090 [72]	946,394 [20]	1,168,737 [6]	2,451,886 [615]
2005	108,129 [475]	377,565 [119]	424,792 [18]	970,309 [3]	1,880,795 [612]
2010	66,338 [313]	242,010 [71]	1,132,149 [34]	642,138 [5]	2,082,635 [422]
2011	85,006 [333]	475,392 [125]	1,204,363 [41]	524,320 [3]	2,289,081 [500]

주 : [ ]은 신고건수를 나타냄.

자료 : 지식경제부(각 년도),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표 3>에서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대규모 직접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까지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직접투자 규모가 다소 큰 편이었다. 2010년 이후 IT관련 산업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일본의 한국투자 특징은 제조업 분야에 비해 비제조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높으나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기업은 생존(生存)을 위한 선택의 하나로서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로 시작된 엔고(円高)현상 속에서 해외직접 투자를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 후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나타난 일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은 과거의 현상들과는 투자지역별, 형태별로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3&gt; 일본기업의 산업별 추이(1965-2011년) (단위 : 건, 천 달러)

구분	농축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 ·수도·건설	전체
1965			500 [1]		500 [1]
1970	433 [4]	19,801 [85]	517 [4]	584 [2]	21,335 [95]
1975	500 [4]	79,215 [59]	32,056 [7]		111,771 [70]
1980		19,302 [51]	20,630 [6]	2,586 [2]	42,518 [59]
1985	166 [1]	37,972 [72]	315,490 [21]	10,625 [2]	364,253 [96]
1990	526 [1]	146,005 [141]	87,373 [89]	1,626 [3]	235,530 [234]
1995		296,696 [196]	127,427 [93]	610 [3]	424,733 [292]
2000	2,082 [5]	721,933 [218]	1,726,832 [384]	1,039 [8]	2,451,886 [615]
2005	2,349 [1]	645,464 [243]	1,231,281 [358]	1,701 [10]	1,880,795 [612]
2010	442 [1]	1,226,416 [146]	853,537 [270]	2,240 [5]	2,082,635 [422]
2011		1,264,843 [191]	994,601 [301]	29,637 [8]	2,289,081 [500]

주 : [ ]은 신고건수를 나타냄.

자료 : 지식경제부(각 년도),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2.2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지분소유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한국시장 진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 경서영길(2001)은 해외시장 진입방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비용 특성 외에 전략적 요인과 환경적 특성 요인도 유용하다는 것을 밝혀냈다.<sup>7)</sup> 한미경(2004)은 일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분야에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전기의 부품소재 장비산업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완전소유 신설투자나 M&A(Merger & Acquisition) 형태보다는 현지기업과의 공동출자에 의한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이형오·한미경(2005)에 따르면, 일본기업은 수출→라이선싱→합작투자→단독투자라는 진입의 과정 중에서 모든 단계를 거치거나 그 일

7) 김 경서영길(2001) 「일본기업의 대 한국시장 진입방식의 선택 결정요인-라이선싱과 합작투자를 중심으로」 『國際經營研究』12(2) 國際經營學會, pp.1-30

8) 한미경(2004)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전략과 한국의 지역적 우위성」 『月刊 아태지역 동향』155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pp.22-25

부를 점진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입한다고 주장했다.<sup>9)</sup> 奥田 聡(2002)은 재한일본계 기업의 수익성이 아시아 기타 지역에 비해 양호하고, 판로 및 조달처를 한국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기업과 격렬하게 경쟁하면서 고임금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했다고 한다.<sup>10)</sup> 김주현·설원식(2008)에 따르면, 한국 내 일본계 기업들은 다른 국적 기업들에 비해 본사 지분율이 낮고, 시장으로서의 매력력이 있으며, 현지지향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최동익(2004)은 일본 다국적기업들의 한국 내 경영현지화 연구에서 각 개별 경영기능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경영현지화를 보여주고 있고,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보통 이상의 결과를 주고 있다고 했다.<sup>12)</sup> 姜漢均·李瓊球(2006)는 건당 소규모 투자, 낮은 지분율, 정치·경제적 불안에 대한 고도의 민감성 등이 1998년 이전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가 크고, 제조업 투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T관련 산업 중심의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sup>13)</sup> 金三洙(1996)는 재한일본계 투자기업의 노동력 이용에 관련하여 사무·기술직과 기능직 사이에 위계질서를 갖는 수직적 직종=직급제도를 개편하여 연속성을 갖는 인사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주장했다.<sup>14)</sup> 김태영(1998)은 제품의 기술 특성 및 톱매니지먼트의 의사결정과 노동자와 조합 측의 태도나 행동 패턴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sup>15)</sup> 최창규·이명훈(2004) 및 최창규(2004)는 한국과 투자국의 경제규모가 크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좋을수록, 한국의 법인세, 원화가치가 투자국에 비해 약세일 때, 한국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커진다고 했으며, 임금 상승률과 더불어 노사문제가 안정적일 때 직접투자가 증가한다고 했다.<sup>16)</sup> 결국, 한국시장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

9) 이형오·한미경(2005) 「일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형태에 관한 연구」 『韓日經商論集』30 韓日經商學會, pp.63-92  
 10) 奥田 聡(2002) 「在韓日本系企業の経営現況と事業拡張要因：JETROの在アジア日本系製造業企業実態調査の深層分析を基礎に」 『東北亜經濟研究』14(3) 韓國東北亞經濟學會, pp.131-162  
 11) 김주현·설원식(2008)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형태-비 일본계 외투기업과의 비교 분석」 『韓日經商論集』39 韓日經商學會, pp.61-85  
 12) 최동익(2004) 「일본계 다국적기업의 한국 내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東西研究』16(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pp.69-98  
 13) 姜漢均·李瓊球(2006) 「日本の対韓国直接投資の特性と經濟的効果」 『韓日經商論集』35 韓日經商學會, pp.209-230  
 14) 金三洙(1996) 「在韓國 日本系 投資企業の 人事管理 勞務關係 事例調査：韓日比較의 視角에서」 『韓日經商論集』12 韓日經商學會, pp.97-124  
 15) 김태영(1998)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제조업을 중심으로」 『産經論叢』20 韓日經商學會, pp.109-129  
 16) 최창규·이명훈(2004) 「일본의 직접투자분석과 우리나라 유치방안」 『사회과학논총』22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91-215; 최창규(2004) 「국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분석」 『국제경제연구』10(1) 한국국제경제학회, pp.49-68

현지화 경향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가치, 경영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면, Chhibber & Majumdar(1999)<sup>17)</sup>와 Khanna & Palepu(1999)<sup>18)</sup>는 인도기업을 표본으로 삼아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높을수록 기업가치와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으며, Claessens et al.(2002)은 체코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높은 가치와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sup>19)</sup> 박헌준 외(2004)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과 기업가치 간에 정(+)의 비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sup>20)</sup> 또한 김경애(2010)는 외국인투자지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중, 투자국별, 기업규모는 성과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CEO 국적, 회사의 설립시기, 산업 등은 성과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소유는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sup>21)</sup>

다음으로 소유지분 형태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Beamish (1985)는 소유지분이 50% 미만인 합작투자(Joint Venture)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sup>22)</sup> 반면 Lee & Beamish(1995)는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합작투자에서 소유지분 형태와 투자성과 간의 관계가 발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sup>23)</sup> 한충민(2000) 연구에서는 소유지분 유형이 투자 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현지의 매출 비중과 조달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4)</sup>尹盛煥(2007)은 중국기업의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기업의 소유지분율이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결국, 진출방식에 따른 투자성과는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Wholly Owned)가 항상 높은 경영성과를 가져오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투자기업의 소유지분과 투자성과 간의 관계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sup>25)</sup>

17) Chhibber, P. and S. Majumdar(1999) Foreign Ownership and Profitability : Property Rights, Control, and the Performance of Firms in Indian Industr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2, pp.209-238

18) Khanna, T. and K. Palepu(1999) Emerging Market Business Group, Foreign Investors and Corporate Governance, *NBER Working Paper*, p.6955

19) Claessens, S., S. Djankov, J. Fan and L. Lang(2002) Disentangling the Incentive and Entrenchment Effects of Large Shareholding, *Journal of Finance* 57, pp.2741-2771

20) 박헌준·신현한·최완수(2004) 「한국기업의 대리인비용과 기업가치: 외국인 지분의 역할」 『경영학연구』 33(2) 한국경영학회, pp.655-682

21) 김경애(2010) 「외국인투자지분율 차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17(4) 한국기업경영학회, pp.37-55

22) Beamish, Paul W.(1985) The 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20(3), pp.13-19

23) Lee, Chol and Paul W. Beamish(1995)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Korean joint ventures in LDC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3), pp.637-654

24) 한충민(2000)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國際經營研究』 11(2) 國際經營學會, pp.375-396



이 외에도 具本英(1980)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형태별 분포를 통하여 소수 혹은 공동소유 기업이 크게 증가한 반면 다수 혹은 완전소유 기업이 감소하여, 이러한 경향이 투자비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했다.<sup>26)</sup> 김기현(1999)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낮아지므로 미국 및 일본국적의 외국인투자비용은 한국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7)</sup> 신현한·장진호(2004)는 외국인투자자지분이 높을수록 경영성과와 관련된 최고경영자교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sup>28)</sup> 박영렬 외(2007)는 자회사의 규모가 크고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글로벌산업에서 본국국적 CEO를 파견하는 경향이 있고, 자회사의 현지국의 경험기간이 클수록 현지국적 CEO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sup>29)</sup> 최승학 · 허정(2011)은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높은 경우, 기업의 생산성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산성의 큰 기업인 경우는 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sup>30)</sup>

이처럼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연구는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국내에도 시도되었다. 그 중 일본기업들에 초점을 둔 연구는 한국시장의 진입형태, 방식, 유형, 경영현지화,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지분소유에 관한 연구는 경영성과, 수익성, 기업 가치, 생산성, 투자성과, 최고경영자 교체, 부채비율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특성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별에 따라 한국시장 진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연구와는 학문적 차별성 및 독창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25) 尹盛煥(2007) 「중국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 소유지분율 결정에 관한 연구-협상력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11(3) 국제지역학회, pp.686-710  
 26) 具本英(1980) 「外國人投資企業의 投資比率에 관한 分析」 『한국개발연구』2(3) 한국개발연구원, pp.34-51  
 27) 김기현(1999) 「국가효과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27(5) 한국경영학회, pp.1195-1212  
 28) 신현한 · 장진호(2004) 「최고경영자에 대한 감시자 역할의 변화: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비교」 『전략경영연구』7(2) 한국전략경영학회, pp.1-26  
 29) 박영렬 · 최순규 · 송윤아 · 이승훈(2007) 「한국진출 다국적기업의 CEO 선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32(1) 한국무역학회, pp.17-36  
 30) 최승학·허 정(2011) 「외국인 소유 지분율이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응용경제』13(3) 한국응용경제학회, pp.187-219

### 3. 연구대상 및 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駐韓外國企業協議會(2010)가 외국투자기업을 수록한 『駐韓外國企業體總覽』을 기본적인 원 자료(raw data)로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에 수록된 외국인기업들은 자료가 양호한 4,799사(미주지역 1,287사, 아주지역 2,474사, EU 801사, 기타 지역 164사)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시장에 진출한 외국인기업 중 일본기업 1,706사를 우선 추출한 후, 지분소유 유형과 관련된 내용 등에서 투자활동 관련 자료가 양호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일부 항목에서의 누락으로 인해 분석에서 탈락된 경우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특성과 관련된 기본 정보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목별 자료가 미비한 기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이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첫째, 196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활동한 일본기업이 거의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진출 특성 요인을 시계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기업을 조사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시기별로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특성으로서 추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기업 내용이 소재지, 자본금, 산업, 업종, 투자규모, 투지시기(신고일, 등록일) 등 기업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조사 자료는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6가지 표본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우선 기입하고, 이에 근거하여 명목척도로 측정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 3.2 연구방법

본 자료는 원래 한국시장에 진출한 일본기업(1,706사) 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을 Data Sheet로 전기하여 각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투자비율 유형에 따른 한국시장 진출 특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와 같은 기본정보 이외에 보다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특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에 수록된 모든 투자활동과 관련한 수치를 M/S Excel 프로그램에 Coding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본기업의 목록자료를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

여 한국시장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투자지역별, 자본규모별, 산업별, 업종별, 투자규모별, 투자시기별(신고일, 등록일)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0.0 version 이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s)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의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시장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비율에 따라 지분소유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6가지 특성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식의 소유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분소유 유형인 경우는 분석대상 기업에 따라 소수소유(minority-owned), 공동소유(co-owned), 다수소유(majority-owned), 완전소유(wholly-owned) 유형 등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어 명목척도로 변환하였다. 이처럼 지분소유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현지국가에 투자한 지분에 따라 유형화하면 투자국과 현지국과의 지분소유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소유(49% 미만) 투자는 특정기업이 현지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때 그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49% 미만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소유(50%) 투자는 특정기업이 현지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때 그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과 내국인이 각각 절반씩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수소유(51-99%) 투자는 특정기업이 현지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때 그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절반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소유(100%) 투자는 특정기업이 현지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때 그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전액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한국시장 진출 특성 항목과 관련하여 ① 투자지역인 경우는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기타 등과 같이 6개로 구분하였다. ② 자본규모인 경우는 1백만 달러 미만, 1백만~1천만 달러, 1천만~1억 달러, 1억 달러 이상과 같이 4개로 구분하였다. ③ 산업인 경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2개로 구분하였다. ④ 업종인 경우는 농·축수산물업,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⑤ 투자규모인 경우는 1백만 달러 미만, 1백만~1천만 달러, 1천만~1억 달러, 1억 달러 이상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 ⑥ 투자시기(신고일, 등록일)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표본 특성

<표 4>에서 일본기업의 표본특성을 살펴보면, 투자지역은 서울 818사(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339사(19.9%), 경상 299사(17.5%), 충청 114사(6.7%), 기타 98사(5.7%), 전라 37사(2.2%)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표본 특성 (단위 : 사, %)

구분	항목	N	빈도	구분	항목	N	빈도	
투자 지역	서울	818	48.0	업종	도소매업	386	22.7	
	경기	339	19.9		금융·보험	93	5.5	
	충청	114	6.7	투자 규모	1백만 달러 미만	1,125	66.3	
	경상	299	17.5		1백만~1천만 달러	339	20.0	
	전라	37	2.2		1천만~1억 달러	110	6.5	
	기타	98	5.7		1억 달러 이상	123	7.2	
자본 규모	1백만 달러 미만	923	61.3	신 고 일	1960년대	10	0.6	
	1백만~1천만 달러	280	18.6		1970년대	201	11.8	
	1천만~1억 달러	91	6.0		1980년대	462	27.1	
	1억 달러 이상	212	14.1		1990년대	1,031	60.5	
산업	제조업	1,061	62.3	투 자 시 기	등 록 일	1960년대	4	0.3
	서비스업	642	37.7			1970년대	184	12.5
업종	농·축·수산·광업	12	0.7		1980년대	391	26.5	
	전기전자	1,034	60.7		1990년대	897	60.8	
	기타 제조업	179	10.5					

주 : 표본기업 1,706사 중에서 결측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자본규모는 1백만 달러 미만 923사(61.3%), 1백만~1천만 달러 280사(18.6%), 1억 달러 이상 212사(14.1%), 1천만~1억 달러 91사(6.0%)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은 제조업 1,061사(62.3%)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642사(37.7%)로 나타났다. 업종은 전기전자 1,034사(60.7%), 도소매업 386사(22.7%), 기타 제조업 179사(10.5%), 금융·보험 93사(5.5%), 농·축·수산·광업 12사(0.7%)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규모는 1백만 달러 미만 1,125사(66.3%), 1백만~1천만 달러 339사(20.0%), 1억 달러 이상 123사(7.2%), 1천만~1억 달러 110사(6.5%)로 집계되었는데, 대부분

투자규모는 1천만 달러 이하가 86.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시기에서 보면, 신고일 기준은 1990년대 1,031사(60.5%), 1980년대 462사(27.1%), 1970년대 201사(11.8%) 순으로 나타난 반면, 등록일 기준은 1990년대 897(60.8%), 1980년대 391사(26.5%), 1970년대 184사(12.5%) 순으로 최근에 들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4.2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한국시장 진출 특성

### 4.2.1 투자지역별 특성

<표 5>에서 보면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투자지역별 교차분석은 Chi-square값이 79.047(p값=0.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투자지역별 특성 (단위 : 사, %)

투자지역별 유형별		투자지역별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기타	전체
지분 소유	소수소유	309(18.2)	192(11.3)	64(3.8)	158(9.3)	21(1.2)	55(3.2)	799(47.1)
	공동소유	106(6.2)	33(1.9)	16(0.9)	37(2.2)	3(0.2)	9(0.5)	204(12.0)
	다수소유	143(8.4)	52(3.1)	17(1.0)	49(2.9)	6(0.4)	24(1.4)	291(17.1)
	완전소유	258(15.2)	60(3.5)	17(1.0)	52(3.1)	7(0.4)	10(0.6)	404(23.8)
전체		816(48.1)	337(19.8)	114(6.7)	296(17.4)	37(2.2)	98(5.8)	1,698(100.0)

주 : 카이제곱=79.047, 유의확률=0.00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기업은 전체 1,698사 중 서울 816사(48.1%), 경기 337사(19.8%), 경상 296사(17.4%), 충청 114사(6.7%), 기타 98사(5.8%), 전라 37사(2.2%)의 순을 나타냈다. 지분소유 유형에서 보면, 소수소유는 799사(47.1%)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완전소유 404사(23.8%), 다수소유 291사(17.1%), 공동소유 204사(12.0%)의 순을 나타냈다. 결국, 일본기업은 소수소유 유형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2.2 자본규모별 특성

<표 6>에서 보면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자본규모별 교차분석은 Chi-square값이 21.289(p값=0.01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기업은 전체 1,500사 중 1백만 달러 미만 919사(61.3%),

1백만-1천만 달러 280사(18.7%), 1억 달러 이상 211사(14.1%), 1천만-1억 달러 90사(6.0%)의 순을 나타냈다. 지분소유 유형에서 보면, 소수소유는 714사(47.6%)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완전소유 356사(23.7%), 다수소유 256사(17.1%), 공동소유 174사(11.6%)의 순을 나타냈다. 결국, 일본기업은 소수소유 유형에서 1백만 달러 미만의 자본을 소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자본규모별 특성 (단위 : 사, %)

자본규모별 유형별		1백만 달러 미만	1백만- 1천만 달러	1천만- 1억 달러	1억 달러 이상	전체
지분 소유	소수소유	435(29.0)	144(9.6)	44(2.9)	91(6.1)	714(47.6)
	공동소유	112(7.5)	30(2.0)	9(0.6)	23(1.5)	174(11.6)
	다수소유	140(9.3)	52(3.5)	10(0.7)	54(3.6)	256(17.1)
	완전소유	232(15.5)	54(3.6)	27(1.8)	43(2.9)	356(23.7)
전체		919(61.3)	280(18.7)	90(6.0)	211(14.1)	1,500(100.0)

주 : 카이제곱=21.289, 유의확률=0.011

#### 4.2.3 산업별 특성

<표 7>에서 보면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산업별 교차분석은 Chi-square값이 140.102(p값 =0.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기업은 전체 1,696사 중 제조업 1,056사(62.3%), 서비스업 640사(37.7%)의 비율을 보였다. 지분소유 유형에서 보면, 소수소유는 797사(47.0%)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완전소유 404사(23.8%), 다수소유 291사(17.2%), 공동소유 204사(12.0%)의 순을 나타냈다. 결국, 일본기업은 소수소유 유형에서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산업별 특성 (단위 : 사, %)

산업별 유형별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지 분 소 유	소수소유	592(34.9)	205(12.1)	797(47.0)
	공동소유	134(7.9)	70(4.1)	204(12.0)
	다수소유	170(10.0)	121(7.1)	291(17.2)
	완전소유	160(9.4)	244(14.4)	404(23.8)
전체		1,056(62.3)	640(37.7)	1,696(100.0)

주 : 카이제곱=140.102, 유의확률=0.000

#### 4.2.4 업종별 특성

<표 8>에서 보면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업종별 교차분석은 Chi-square값이 178.950(p값 =0.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기업은 전체 1,697사 중 전기전자 1,029(60.6), 도소매업 384사(22.6%), 기타 제조업 179사(10.5%), 금융·보험 93사(5.5%), 농·축·수산·광업 12사(0.7%)의 순을 나타냈다. 지분소유 유형에서 보면, 소수소유는 798사(47.0%)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완전소유 404사(23.8%), 다수소유 291사(17.1%), 공동소유 204사(12.0%)의 순을 나타냈다. 특히 일본기업들은 농·축·수산·광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진출하기 보다는 전자전기 업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소수소유 형태로 진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업종별 특성 (단위 : 사, %)

업종별 유형별		농·축·수산·광업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	전체
지분 소유	소수소유	10(0.6)	579(34.1)	40(2.4)	123(7.2)	46(2.7)	798(47.0)
	공동소유	1(0.1)	129(7.6)	25(1.5)	37(2.2)	12(0.7)	204(12.0)
	다수소유	0(0.0)	167(9.8)	37(2.2)	69(4.1)	18(1.1)	291(17.1)
	완전소유	1(0.1)	154(9.1)	77(4.5)	155(9.1)	17(1.0)	404(23.8)
전체		12(0.7)	1,029(60.6)	179(10.5)	384(22.6)	93(5.5)	1,697(100.0)

주 : 카이제곱=178.950, 유의확률=0.000

#### 4.2.5 투자규모별 특성

<표 9>에서 보면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투자규모별 교차분석은 Chi-square값이 19.029(p값 =0.02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기업은 전체 1,691사 중 1백만 달러 미만 1,120사(66.2%), 1백만~1천만 달러 339사(20.0%), 1억 달러 이상 123사(7.3%), 1천만~1억 달러 109사(6.4%)의 순을 나타냈다. 지분소유 유형에서 보면, 소수소유는 797사(47.1%)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완전소유 403사(23.8%), 다수소유 287사(17.0%), 공동소유 204사(12.1%)의 순을 나타냈다. 결국, 일본기업은 소수소유 유형에서 1백만 달러 미만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9&gt;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투자규모별 특성 (단위 : 사, %)

투자규모별 유형별		1백만 달러 미만	1백만- 1천만 달러	1천만- 1억 달러	1억 달러 이상	전체
지분 소유	소수소유	559(33.1)	147(8.7)	37(2.2)	54(3.2)	797(47.1)
	공동소유	139(8.2)	38(2.2)	15(0.9)	12(0.7)	204(12.1)
	다수소유	172(10.2)	70(4.1)	21(1.2)	24(1.4)	287(17.0)
	완전소유	250(14.8)	84(5.0)	36(2.1)	33(2.0)	403(23.8)
전체		1,120(66.2)	339(20.0)	109(6.4)	123(7.3)	1,691(100.0)

주 : 카이제곱=19.029, 유의확률=0.025

#### 4.2.6 투자시기별(신고일, 등록일) 특성

<표 10>에서 보면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투자시기별 교차분석은 신고일 기준으로 Chi-square값이 125.027(p값=0.000)로, 등록일 기준으로 Chi-square값이 121.538(p값=0.000)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기업은 신고일 기준으로 전체 1,697사 중 1990년대가 1,029사(6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이어 1980년대 460사(27.1%)의 순을 보였다. 지분소유 유형에서 보면, 소수소유는 799사(47.1%)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완전소유 403사(23.7%), 다수소유 291사(17.1%), 공동소유 204사(12.0%)의 순을 나타냈다.

한편 등록일 기준으로는 전체 1,471사 중 1990년대가 896사(6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이어 1980년대 390사(26.5%)의 순을 보였다. 지분소유 유형에서 보면, 소수소유는 698사(47.5%)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완전소유 350사(23.8%), 다수소유 250사(17.0%), 공동소유 173사(11.8%)의 순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일본기업은 모든 지분소유 유형에서 1990년대에 신고하여 등록한 경우가 60% 이상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10>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투자시기별(신고일, 등록일) 특성 (단위 : 사, %)

유형별		투자시기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전체
		신고일	등록일					
지분 소유	소수소유	신고일		8(0.5)	123(7.2)	276(16.3)	392(23.1)	799(47.1)
		등록일		3(0.2)	113(7.7)	245(16.7)	337(22.9)	698(47.5)
	공동소유	신고일		0(0.0)	27(1.6)	43(2.5)	134(7.9)	204(12.0)
		등록일		1(0.1)	24(1.6)	33(2.2)	115(7.8)	173(11.8)
	다수소유	신고일		0(0.0)	19(1.1)	91(5.4)	181(10.7)	291(17.1)
		등록일		0(0.0)	16(1.1)	73(5.0)	161(10.9)	250(17.0)
완전소유	신고일		2(0.1)	29(1.7)	50(2.9)	322(19.0)	403(23.7)	
	등록일		0(0.0)	28(1.9)	39(2.7)	283(19.2)	350(23.8)	
전체		신고일		10(0.6)	198(11.7)	460(27.1)	1,029(60.6)	1,697(100.0)
		등록일		4(0.3)	181(12.3)	390(26.5)	896(60.9)	1,471(100.0)

주 1) 신고일 기준은 카이제곱=125.027, 유의확률=0.000

주 2) 등록일 기준은 카이제곱=121.538, 유의확률=0.000

## 5. 맺음말

###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시장에 진출해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과거 일본기업은 노동력 등 저임금을 목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을 시도했지만 최근에 들어 국제경제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기업의 표본특성을 살펴보면, 투자지역은 서울 818사(48.0%), 자본규모는 1백만 달러 미만 923사(61.3%), 산업은 제조업 1,061사(62.3%), 업종은 전기전자 1,034사(60.7%), 투자 규모는 1백만 달러 미만 1,125사(66.3%), 투자시기(신고일, 등록일)는 1990년대 각각 1,031사(60.5%), 897사(6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일본기업은 다른 지분소유 유형에 비해 소수소유 유형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투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편리성,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 탐색 등 투자기업들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유기적 관계를 도모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본기업은 다른 지분소유 유형에 비해 소수소유 유형에서 1백만 달러 미만 자본을

소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보다는 소규모 자본을 갖고 한국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일본기업은 다른 지분소유 유형에 비해 소수소유 유형에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투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변 국가의 산업정책이 변화하면서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새로운 한국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일본기업은 다른 지분소유 유형에 비해 소수소유 유형에서 전기전자,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 투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일 간의 교역관계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한국기업과의 합작투자나 한국 소비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여섯째, 일본기업은 다른 지분소유 유형에 비해 소수소유 유형에서 1백만 달러 미만의 자본을 투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의 내부특성인 기업규모나 업종, 조직유형에 따라 투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현지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일본기업은 다른 지분소유 유형에 비해 소수소유 유형에서 1990년대에 신고하여 등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시장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일본과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버블경제 이후 투자한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이 투자지역, 자본규모, 산업, 업종, 투자 규모, 투자시기(신고일, 등록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분소유 유형 중 완전소유인 단독투자보다는 소수소유인 합작투자 형태로 한국시장에 진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5.2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현지국의 투자비율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자들은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한국시장 진출 특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투자국과 현지국 간의 투자비율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둘째, 본사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때 외국인 투자자의 선도(initiative) 및 자본유치국의 투자비율 제한 등 정부의 외국인투자 비율에 관한 시책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지국의 투자환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현지국의 외국인투자 결정에 대해 정책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투자국의 선택의 폭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넷째, 일본기업은 과거 완전소유인 단독투자 형태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향후 투자자본의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합작투자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지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10년도 자료(駐韓外國企業體總覽) 등을 가지고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에 대해 한국시장 진출 특성을 전개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2010년도 이전에 수록되어 경영활동을 수행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 기업이 본사와 현지국과의 관계, 통제권의 위치, 사업의 연속성 여부 등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6개의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을 대상으로 삼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96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국시장 진출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고찰을 시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본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밀화하면서 2010년 이전에 존속했다가 한국시장에서 이전, 철퇴, 도산(폐업)한 기업을 토대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參考文獻】

姜漢均·李瓊球(2006) 「日本の対韓国直接投資の特性と経済的効果」 『韓日經濟論集』35 韓日經濟學會, pp.209-230  
 具本英(1980) 「外國人投資企業의 投資比率에 관한 分析」 『한국개발연구』2(3) 한국개발연구원, pp.34-51  
 金三洙(1996) 「在韓國 日本系 投資企業의 人事管理·勞使關係·事例調査 : 韓日比較의 視角에서」 『韓日經濟論集』12 韓日經濟學會, pp.97-124  
 김 경·서영길(2001) 「일본기업의 대 한국시장 진입방식의 선택 결정요인-라이센싱과 합작투자를 중심으로」 『國際經營研究』12(2) 國際經營學會, pp.1-30  
 김경애(2010) 「외국인투자지분율 차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17(4) 한국기업경영학회, pp.37-55  
 김관호(1999) 「금융위기를 전후한 아세안 외국인 투자환경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8 한국동남아학회, pp.47-79  
 김기국·임덕순·이명진·홍성범(2000)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기현(1999) 「국가효과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27(5)

- 한국경영학회, pp.1195-1212
- 김주현·설원식(2008)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행태-비 일본계 외투기업과의 비교분석」 『韓日經商論集』39 韓日經商學會, pp.61-85
- 김준동·강준구·김혁황·김민성·이성봉(2009)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48
- 김태영(1998)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제조업을 중심으로」 『産經論叢』20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연구소, pp.109-129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해의 글로벌기업의 국내진출 현황 보고』
- 박영렬·최순규·송윤아·이승훈(2007) 「한국진출 다국적기업의 CEO 선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2(1) 한국무역학회, pp.17-36
- 박헌준·신현한·최완수(2004) 「한국기업의 대리인비용과 기업가치: 외국인 지분의 역할」 『경영학연구』 33(2) 한국경영학회, pp.655-682
- 신현한·장진호(2004) 「최고경영자에 대한 감시자 역할의 변화: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비교」 『전략경영연구』7(2) 한국전략경영학회, pp.1-26
- 尹盛煥(2007) 「중국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 소유지분을 결정에 관한 연구-협상력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11(3) 국제지역학회, pp.686-710
- 이병기(2008)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p.27
- 이형오·한미경(2005) 「일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형태에 관한 연구」 『韓日經商論集』30 韓日經商學會, pp.63-92
- 정월순·김영일(2008) 「일본소매기업의 해외진출 특수성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15(2) 한국기업경영학회, pp.231-249
- 駐韓外國企業協議會(2009) 『2010 駐韓外國企業體總覽』
- 重化学工業通信社(2011) 『2011 日本企業のアジア進出總覽』
- 지식경제부(각 년도)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최동익(2004) 「일본계 다국적기업의 한국 내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東西研究』16(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pp.69-98
- 최승·허 정(2011) 「외국인 소유 지분율이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응용경제』13(3) 한국응용경제학회, pp.187-219
- 최영호(2011) 「눈에 띄는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韓日時評』 제252호, p.4
- 최창규(2004) 「국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10(1) 한국국제경제학회, pp.49-68
- 최창규·이명훈(2004) 「일본의 직접투자분석과 우리나라 유치방안」 『사회과학논총』22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91-215
- 奥田 聡(2002) 「在韓日本系企業の経営現況と事業拡張要因: JETROの在アジア日本系製造業企業実態調査の深層分析を基礎に」 『東北亜經濟研究』14(3) 韓國東北亞經濟學會, pp.131-162
- 한미경(2004)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전략과 한국의 지역적 우위성」 『月刊 아태지역 동향』155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pp.22-25
- 한충민(2000)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國際經營研究』11(2) 國際經營學會, pp.375-396
- Beamish, Paul W.(1985) The 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20(3), pp.13-19
- Chhibber, P. and S. Majumdar(1999) Foreign Ownership and Profitability : Property Rights, Control, and the Performance of Firms in Indian Industr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2, pp.209-238
- Claessens, S., S. Djankov, J. Fan, and L. Lang(2002) Disentangling the Incentive and Entrenchment Effects of

Large Shareholding, *Journal of Finance* 57, pp.2741-2771

Khanna, T. and K. Palepu(1999) Emerging Market Business Group, Foreign Investors and Corporate Governance, *NBER Working Paper*, p.6955

Lee, Chol and Paul W. Beamish(1995)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Korean joint ventures in LDC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3), pp.637-654

<http://www.mke.go.kr>

---

논문투고일 : 2012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10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25일

---

**< 要 旨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에 따른 한국시장 진출 특성**

본 연구는 2010년도 《주한외국기업체총람》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소수소유, 공동소유, 다수소유, 완전소유)에 따른 한국시장 진출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기업은 완전소유 유형에서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기업은 완전소유 유형에서 1백만 달러 미만의 자본규모를 소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본기업은 완전소유 유형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수소유와 다수소유 유형은 도소매업, 전기전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동소유와 완전소유는 도소매업, 기타 제조업에 높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기업은 완전소유 유형에서 1백만 달러 미만의 자금을 투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다수소유와 완전소유 유형은 1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일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일본기업은 완전소유 유형에서 1990년대에 신고하여 등록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일본기업의 지분소유 유형은 진출지역, 자본금, 산업, 업종, 투자액, 투자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분소유 유형 중 소수소유인 합작투자 형태로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dvancement  
into the Korean Market of Japanese Enterprises by Type of Ownership**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dvancement into the Korean market of Japanese enterprise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ir ownership(minority-owned, co-owned, majority-owned, and wholly-owned) by employing data from 《the 2010 Foreign Enterprises Statistics》. Through analysis of the statistic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any of Japanese enterprises in the minority-owned type have advanced mostly into Seoul and Geoynggi Province in South Korea. Secondly, most of those enterprises tend to own less than 1 million dollars of capital. Thirdly, many of them have invest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rather than the service industry. Fourthly, while enterprises advancing with minority-owned type are shown to invest in the electrical & electronics industry and the wholesale & retail trade industry. Fifthly, it is shown that many of Japanese enterprises in the minority-owned type are inclined to invest less than 1 million dollars of their capital. Sixthly, it is indicated that most of minority-owned types started up their businesses in the 1990s.

Finally, it showed that the type of share ownership of Japanese enterprises has an influence on regions, capital, industries, type of businesses, invested amount, and investing time. Especially, most of these enterprises are characterized to enter the Korean market as a minority-owned type, or with joint venture.